

2020 수능완성
현대운문 고전운문 모음

EBS분석서 2020 자료모음

2020 수능완성 국어 독서/문학 제재

EBS분석서 2020

*공간 확보를 위해 몇몇 항목은 이동하였습니다.

독서	1	2	3
유형	합리화의 역리 극복-베버와 하버마스	합리적 시대 이론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실전1	인문, 심리적 면역 체계	사회, 코즈의 정리와 법경제학	과학,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실전2	사회, 소비와 문화의 불평등	기술,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예술, 아방가르드와 예술 작품의 가치
실전3	인문, 분석 철학과 러셀의 철학	사회,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변화	융합, 식라의 점묘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
실전4	과학, 태풍의 발달 원인과 구조	융합, 담합의 불안정성과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인문, 사회와 봉당 정치
실전5	기술, 녹아웃	인문, 언어학자들은 은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술, 파노프스키의 도상학과 뒤러
			사회,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생활보호제도

문학	현대문학	현대산문	고전문문	고전산문	극&수필
유형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싣고	이기철, 청산행	손창섭, 잉여인간	신계영, 월선헌심육경가	송혜진, 박흥식, 인어공주
실전1	윤동주, 바람이 불어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최인훈, 회색인	정철, 관동별곡	(고전산문) 이침, 원수
실전2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기형도, 가을 무덤-제망매가	김동인, 태형	정훈, 우화가	조환유 외, 편지
실전3	이동순, 개밥풀	(고전문문) 궁병이 매암이 되야	서정인, 후송	신홍, 냇가에 헤오라바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실전4	박두진, 설악부	이건청, 하루	김원일, 노을	이이, 고산구곡가	이양하, 나무의 위의
실전5	조지훈, 흙을 만지며		이청준, 자서전을 쓰십시오	사제가	윤대성, 출세기

우측 QR코드인식시 EBS 독서 연계 배경지식 학습서 2020 구매하면으로 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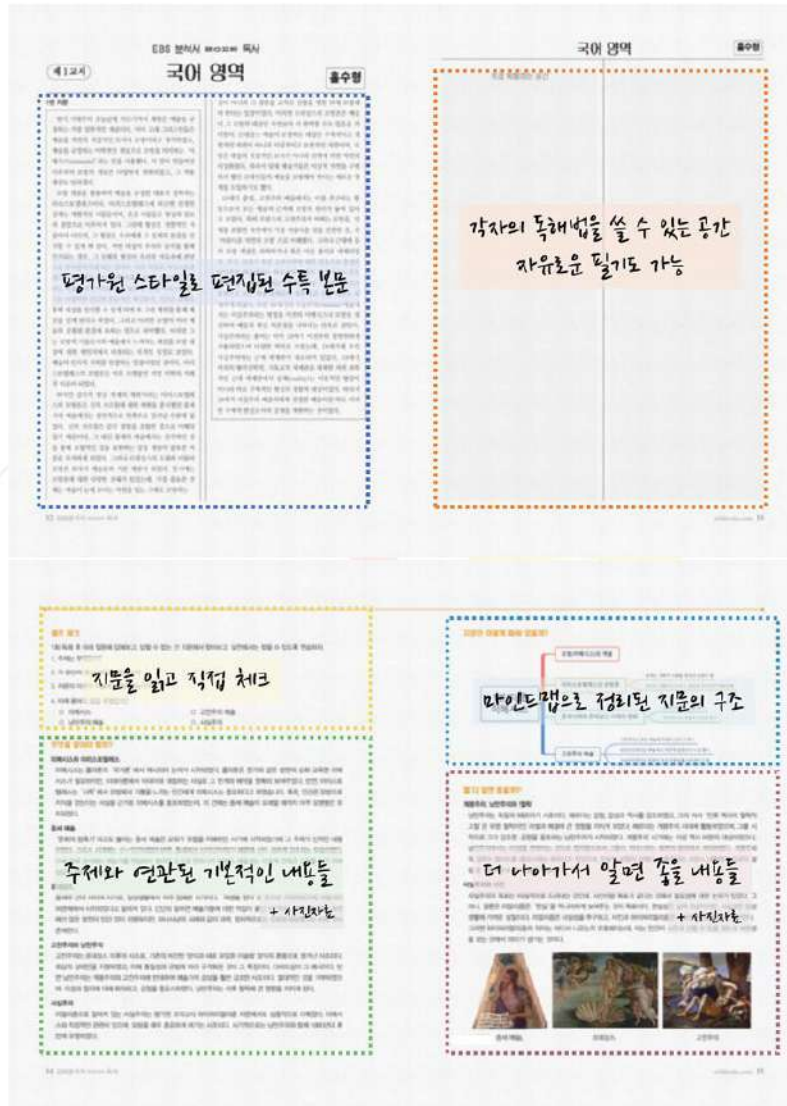
(좌, 네이버 책, 우, 오르비북스)



EBS 분석서 ㄹㅇㅍㅌㅕ 자료시리즈입니다

ㄹㅇㅍㅌㅕ는 EBS 독서 분석서입니다.

현재 교보문고, yes24 등 대부분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네이버책정보, 오르비 북스)



현대운문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EBS
이기철, 청산행

윤동주, 바람이 불어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기형도, 가을 무덤-제망매가

이동순, 개밥풀

박두진, 설악부

이건청, 하류

조지훈, 흙을 만지며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EBS 분석서
2018
독서



청산행

이기철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人家)를 내려다 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南方)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지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野性)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 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 오르고
생목(生木)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EBS 분석서
2011
표
독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연나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익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 원때문에 10 원때문에 1 원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산문(山門)에 기대어

송수권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 가면

즈믄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옴을



가을 무덤-제망매가

기형도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시리도록 허연

이 零下(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 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겉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연바꿈)

EBS 분석서
2011
독서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손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짙절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뒷켠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河口(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神經(신경)을 앓는 中風病者(중풍병자)로 태어나
全身(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개밥풀

이동순

아닌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논귀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리며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
방게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램을 푸는 일 없이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가노라
벗집 사이로 빠지는 열기
음력 사월 무논의 개밥풀의 함성
논의 수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히 흩어놓았다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EBS 분석서
2018
독서



도처에서 그의 앞파랑이를 햇살에 날리우고

더러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치며 부서지는

개밥풀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자욱한 벚집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고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우는 달밤이면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씨앗이 굶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붙는다.

EBS 분석서

2011

독서



설악부

박두진

1

부여 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열었다.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 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 태고에 놓여있다.

2

왜 이렇게 자주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걸까?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힌다.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려라. 한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杜鵑? 杜鵑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太陽, 다른 太陽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復活할 것도 믿어본다.

3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위에서 서로 아우성 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주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하류

이건칭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 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들을 만들어 주었네.

EBS 분석서
2018
독서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뜰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버렸지만

둥치마저 타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 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EBS 분석서

2018

독서



흙을 만지며

조지훈

여기 피비린 옥루(玉樓)를 헐고
따사한 햇살에 익어 가는
초가삼간(草家三間)을 나는 짓자.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 자루 호미를 베풀어 보자.

풍기는 흙냄새에 귀기울이면
늪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심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사랑이 그물을 치나.



고전운문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정철, 관동별곡

정훈, 우활가

신희, 냇가에 해오라바

굼병이 매암이 되야

이이, 고산구곡가

사제가

독서

월선헌십육경가는 찾을수없음...

찾으시면 sysysys4126@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즉각반영하겠습니다



관동별곡

정철

江湖(강호)애 病(병)이 깊퍼 竹林(독림)의 누엇더니,
 關東(관동) 八百里(팔백리)에 方面(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성은)이야 가디록 罔極(망극)하다.
 延秋門(연추문) 드리드라 慶會南門(경회 남문) 바라보며,
 下直(하직)고 물너나니 玉節(옥절)이 알피 섰다.
 平丘驛(평구역) 물을 7라 黑水(흑슈)로 도라드니,
 蟾江(섬강)은 어디메오, 雉岳(티악)이 여기로다.
 昭陽江(쇼양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臣(고신) 去國(거국)에 白髮(백발)도 하도 할샤.
 東洲(동주) | 밤 게오 새와 北寬亭(북관당)의 올라흐니,
 三角山(삼각산) 第一峰(테일봉)이 험마면 뵈리로다.
 弓王(궁왕) 大闕(대궐) 터희 烏鵲(오작)이 지지괴니,
 千古(천고) 興亡(흥망)을 아난다, 물으난다.
 淮陽(회양) 네 일홈이 마초아 7툴시고.
 汲長孺(급당유) 風彩(풍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營中(영중)이 無事(무스)하고 時節(시절)이 三月(삼월)인 제,
 花川(화천) 시내길히 風岳(풍악)으로 버더 잇다.
 行裝(행장)을 다 썰티고 石逕(석경)의 막대 디퍼,
 百川洞(백천동) 겨터 두고 萬瀑洞(만폭동) 드러가니,
 銀(은) 7튼 무지개, 玉(옥) 7튼 龍(룡)의 초리,
 섯들며 쑹는 소리 十里(십리)의 조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金강臺(금강대) 민 우屨(층)의 仙鶴(선학)이 샷기 치니,

春風(춘풍) 玉笛聲(옥덕성)의 첫즈음 씨뚫던디,

縞衣玄裳(호의 현상)이 半空(반공)의 소소 쓰니,

西湖(서호) 넷 主人(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小香爐(소향노) 大香爐(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陽寺(정양스) 眞歇臺(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廬山(녀산) 眞面目(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造化翁(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芙蓉(부용)을 고갓는 듯, 白玉(백옥)을 못것는 듯,

東溟(동명)을 박초는 듯, 北極(북극)을 괴왓는 듯.

놉흘시고 望高臺(망고대), 외로올샤 穴望峰(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萬劫(천만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7특니 또 잇는가.

開心臺(기심대) 고터 올라 衆香城(중향성) 바라보며,

萬二千峰(만이천봉)을 歷歷(력력)히 헤여흐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人傑(인걸)을 문들고자.

形容(형용)도 그지업고 體勢(테세)도 하도 할샤.



天地(턴디) 삼기실 제 自然(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情(유정)도 有情(유정)홀샤.

毗盧峰(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늬야 놉듯던고.
魯國(노국) 조븐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天下(턴하) 엇씨호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圓通(원통)골 7는 길로 獅子峰(스즈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化龍(화룡)쇠 되여세라.
千年(천년) 老龍(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晝夜(듀야)의 흘녀 내여 滄海(창해)에 니어시니,
風雲(풍운)을 언제 어더 三日雨(삼일우)를 디련는다.
陰崖(음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어스라.

磨訶衍(마하연) 妙吉祥(묘길상) 雁門(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무 써근 두리 佛頂臺(불딩디) 올라호니,
千尋絕壁(천심절벽)을 半空(반공)에 세여 두고,
銀河水(은하슈)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圖經(도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李謫仙(니덕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廬山(녀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山中(산둥)을 미양 보라, 東海(동해)로 가자스라.

藍輿緩步(남여완보)하야 山映樓(산영누)의 올라하니,

玲瓏(녕농) 碧溪(벽계)와 數聲啼鳥(수성 데요)는 離別(니별)을 怨(원)하는 듯,

旌旗(정기)를 썰티니 五色(오식)이 넘노는 듯,

鼓角(고각)을 섰부니 海雲(해운)이 다 걷는 듯.

鳴沙(명사)길 니근 물이 醉仙(취선)을 빗기 시러,

바다흙 것딕 두고 海棠花(해당화)로 드러가니,

白鷗(백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金蘭窟(금난굴) 도라드려 叢石亭(총석당) 올라하니,

白玉樓(백옥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工倕(공쥬)의 성녕인가, 鬼斧(귀부)로 다드문가.

구튼야 六面(육면)은 무어슬 象(상)뒀던고.

高城(고성)을란 더만 두고 三日浦(삼일포)를 차자가니,

丹書(단서)는 宛然(완연)하되 四仙(스션)은 어디 가니.

에 사흘 머은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仙遊潭(선유담) 永郎湖(영랑호) 거기나 가 잇는가.

淸澗亭(청간당) 萬景臺(만경대) 몇 고딕 안뒀던고.

梨花(니화)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山(낙산) 東畔(동반)으로 義相臺(의상대)에 올라 안자,



日出(일출)을 보리라 밤등만 내려하니,
 祥雲(상운)이 집피는 동, 六龍(육룡)이 바되느 동,
 바다히 써날 제는 萬國(만국)이 일위더니,
 天中(턴둥)의 티쓰니 毫髮(호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仙(시선)은 어디 가고 咳唾(해타)만 나맛느니.
 天地間(턴디간) 壯(장)혼 기별 조셔히도 흘셔이고.

斜陽(사양) 峴山(현산)의 躑躅(적적)을 므니불와,
 羽蓋芝輪(우개지륜)이 鏡浦(경포)로 내려가니,
 十里(십 리) 氷紈(빙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松(당송) 울흔 소개 슬꺾장 떠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사 모래를 헤리로다.
 孤舟解纜(고주 히람)하야 亭子(딩즈) 우히 올라가니,
 江門橋(강문교) 너른 겨터 大洋(대양)이 거기로다.
 從容(동용)혼다 이 氣象(기상) 濶遠(활원)혼다 더 境界(경계),
 이도곤 7촌 더 쏘 어딴 잇단 말고.
 紅粧(홍장) 古事(고스)를 헌스타 흐리로다.
 江陵(강릉) 大都護(대도호) 風俗(풍속)이 도흘시고.
 節孝旌門(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屋可封(비옥가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眞株館(진주관) 竹西樓(독서루) 五十川(오십천) 느린 물이,
 太白山(태백산) 그림재를 東海(동해)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江(한강)의 木覓(목역)의 다히고져.
 王程(왕덩)이 有限(유한)하고 風景(풍경)이 못 슬믹니,
 幽懷(유회)도 하도 할샤, 客愁(객수)도 둘 디 업다.
 仙槎(선사)를 띄워 내여 斗牛(두우)로 向(향)하살가,
 仙人(선인)을 좇조려 丹穴(단혈)의 머므살가.

天根(턴근)을 못내 보와 望洋亭(망양덩)의 읊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山(은산)을 것거 내여 六舍(육합)의 느리는 듯,
 五月(오월) 長天(당턴)의 白雪(백설)은 므스 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風浪(풍낭)이 定(덩)하거늘,
 扶桑(부상) 咫尺(지척)의 明月(명월)을 기다리니,
 瑞光(서광) 千丈(천당)이 뵈는 듯 숨는고야.
 珠簾(주렴)을 고터 짓고, 玉階(옥계)를 다시 쓸며,
 啓明星(계명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百蓮花(백년화) 훈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요흔 世界(세계) 늑대되 다 뵈고져.
 流霞酒(뉴하쥬) 꺾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英雄(영웅)은 어디 가며, 四仙(스선)은 그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하니,
 仙山(선산) 東海(동해)에 갈 길히 머도 멀샤.



松根(송근)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
 꿈에 혼 사름이 날드려 날온 말이,
 그딴를 내 모르랴, 上界(상계)에 眞仙(진선)이라.
 黃庭經(황당경) 一字(일자)를 었디 그릇 날거 두고,
 人間(인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斗星(북두성) 기우려 滄海水(창희슈)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화풍)이 習習(습습)하야 兩腋(양익)을 추혀 드니,
 九萬里(구만리) 長空(당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스히)에 고로 논화,
 億萬(억만) 蒼生(창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ㅎ쟈고야.
 말 디자 鶴(학)을 톡고 九空(구공)의 올라가니,
 空中(공둥) 玉簫(옥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줍을 씨여 바다를 구버보니,
 기픽를 모르거니 7인들 었디 알리.
 明月(명월)이 天山萬落(천산 만낙)의 아니 비친 딕 업다.



우활가

정훈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迂濶하고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이바 벗님네야 迂濶흔 말 들어 보소

이 내 저머신 제 迂濶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거나미 禽獸에 다르므로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分內事만 해엇더니 혼 일도 못되며

세월이 느껴지니 平生 迂濶은

날 뵈와 기러간다 아춤이 부족흔들

저녁을 근심하며 一間茅屋이

비시는 줄 아돏던가 懸鵲 百結이

붓쓰려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놈 무일 줄 아돏던가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올 줄 어이 알며 夏亭의 즈을 드러

뭍 썬 줄 어이 알며 秋天의 들 마자



밤드느 줄 어이 알며 冬雪에 詩興 계워

치움을 어이 알리 四時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末路에 브린 몸이

므스 일을 思念홀고 人間 是非

듯도 보도 못하거든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가 迂濶홀샤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하니 하눌 삼긴 迂濶을

내 혈마 어이 하리 그레도 애웁도다

고쳐 안자 싱각하니 이 몸이 느껴 나

애들은 일 하고 만타 一百번 다시 죽어

넛 사람 되고라자 羲皇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堯舜日月을

저그나 뵈을 싸슬 淳風이 已遠하니

偷薄이 다 되거다 汗漫하 情懷을

눌드려 니르려뇨 泰山의 올라가

天地 八荒이나 다 브라 보고제고

鄒魯애 두르 거러 聖賢 講業하던



자취나 보고제고 周公은 어디 가고

꿈의도 뵈잔눈고 已甚흔 이 내 囊을

슬허하다 어이 萬里에 눈 쓰고

太古애 뿔줄 두니 迂濶흔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人間의 호자 旣여

놀드려 말을 흘고 祝鮓의 妄言을

이제 비화 어이 宋朝의 美色을

얼근 訖치 잘 肅런가 右담 山草實를

어디 어더 머그려뇨 무이고 못고이미

다 迂濶의 타시로다 이리 혜오 저리 혜오

다시 혜니 一生事業이 迂濶 아닌 일 업뇌와라

이 迂濶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 萬里

아희아 釐 가득 부어라 醉하여 내 迂濶 닛다

EBS 분석서 크 오 교 E 독서



넋가에 해오라바~

신흥

원문

넋가에 헝 | 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무심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헝려는다
아마도 헝 물에 잇거니 니저 니들 엇드리

현대어

넋가에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셔 있느냐?
사심 없이 노니는 저 고기를 엇보아서 무엇하려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같이 한 물에 살고 있는 입장이니, 아예 잊어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EBS 분석서
코오트
독서



굼벵이 매암이 되야

(미상)

굼벵이 매암이 되야 나래 도쳐 나라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죠커니와

그 우희 거미줄 이시니 그를 조심햐여라,

EBS 분석서

2018

표지

독서



고산구곡가

이이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물으든지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想像)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해오리라.

일곡(一曲)은 어드매고 관암(冠巖)에 해 빛친다.
평무(平蕪)에 내 거든이 원근(遠近)이 글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녹코 벗 온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고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곱출 싹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몰온이 알게 한들 엇더리.

삼곡(三曲)은 어드매고 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녹수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반송(盤松)이 수청풍(受淸風) 이 녀름 경(景)이 업세라

사곡(四曲)은 어드매고 송애(松崖)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갓 빛이 잠겼세라.
임천(林泉)이 깃도록 죠흐니 흥을 계워 하노라.

〈연나뉼〉



오곡(五曲)은 어디매고 은곡(隱曲)이 보기 조희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사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할연이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하올이라.

육곡(六曲)은 어디매고 조래(釣臺)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이느고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하노라.

칠곡(七曲)은 어디매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조탁
청상(淸霜)이 얹게 친이 절벽(絶壁)이 금수(錦繡)이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앉아 집을 닛고 잇노라.

팔곡(八曲)은 어디매고 금난(琴灘)에 달이 붙다.
옥진금미(玉軫金微)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론 말이
고조(古調)를 알 리 업쓰니 혼자 즐여 하노라.

구곡(九曲)은 어디매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하드라.



사제가

(작자미상)

강산을 대하여도 아우 생각 간절하고
화초를 대하여도 아우 생각 간절하다.
오뉴월 가문 때에 취우(驟雨)같이 가서 볼까
구시월 찬바람에 낙엽같이 날아갈까
첨첨심산 곧은 골의 바람같이 가서 볼까
삼월 동풍 연자(燕子)되어 옛집을 찾아 갈까
연비루천(鸞飛淚天) 소리개같이 높이 떠서 너를 볼까
구만리 장천상에 대붕(大鵬)같이 날아갈까
천리마를 빗겨 타고 가는 대로 가서 볼까
천산(天山)에 유숙하고 중로(中路)에서 보고 올까
내 몸이 달이 되면 네 창 앞에 비치 볼까
내 발이 구름 되면 네 집에 들러 볼까
오매불망 네 생각이 하시하월(何時何月) 상봉할고.
내 나이 사십이오 네 나이 삼십이라
무정할사 세월이여 백발되기 그리 멀까
나는 본대 병객인데 너는 무슨 병이 있노.
삼신산 불로초(不老草)를 뉘 능히 얻을소냐.
적성의 일녕주를 세상에 누가 알고
이녀(二女)두고 한탄 마라. 딸은 자식 아닐소냐.
사녀(四女)둔 네 형은 우중에도 낙사(樂事)로다.
기이할사 우리 아우 여자되기 아깝도다.



위장강이 갱생(更生)인가 백재(白材)가 구비하고
소아란의 문견(聞見)인가 식견(識見)도 호태하다.
동창(東窓)에 달이 뜨면 앉았는가 생각하고
서산(西山)에 달이 지면 누웠는가 생각하고
망회(忘懷)나 하려 하고 옛 책을 읽어보니
조웅전(趙雄傳) 풍운전(風雲傳) 슬프고 장하도다.
장백전(張伯傳) 봉황전(鳳凰傳) 진언인가 허설인가
사씨전(謝氏傳) 숙향전(淑香傳) 굶이굶이 기담일세.
두 손을 마조 잡고 만단정회(萬端情懷) 하였더니
춘몽(春夢)도 헛것이라. 갑자기 깨졌구나.
다시 심회 불평하니 백이사지(伯夷斯之) 아닐런가.
생각고 생각하니 무익(無益)할사 생각이야.
아모리 생각한들 내 마음 네가 불가
내 이리 생각할 제 넌들 아니 생각하랴.

독서

